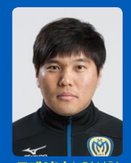
COACHING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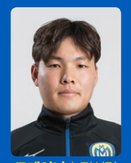

감독 | 박동혁


코치 | 유병훈


코치 | 최익형


코치 | 이완


트레이너 | 엄성현


트레이너 | 정성령

GK


31 양형모 185cm 81kg


41 최봉진 193cm 83kg

DF


2 박선용 173cm 67kg


4 김상필 188cm 84kg


5 이용 187cm 83kg


16 김동진 177cm 74kg


26 김준수 185cm 78kg


32 김봉래 177cm 65kg


33 이한샘 185cm 80kg


39 민상기 184cm 79kg


90 구대영 177cm 72kg

MF


13 김영남 178cm 75kg


14 김민균 173cm 68kg


15 안현범 178cm 72kg


17 조성준 176cm 67kg


19 임창균 174cm 64kg


22 허범산 177cm 70kg


23 김도혁 174cm 70kg


24 박세직 178cm 76kg


25 조범석 182cm 76kg


28 주세종 174cm 68kg


29 이명주 175cm 68kg


77 김부관 172cm 60kg


88 김선민 168cm 65kg

FW


12 김륜도 187cm 74kg


18 고무열 185cm 78kg



KEB 하나은행

K LEAGUE 2 2018 우승!

아산 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ASAN MUGUNGHWA FOOTBALL CLUB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35R

2018. 11. 4(일). 17:00 이순신종합운동장

FC 안양

Smart Asan | 푸드렐라 | EG the 1 | Mizuno | KEB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박동혁 감독, “하나가 되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

2018시즌 출발선에 섰을 때, 박동혁 감독은 최연소 감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모로 눈초리를 받았다. 패기는 인정하지만, 경험적 측면에서 설익은 지도자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박감독의 지도 아래 아산을 시즌내내 우승권을 질주했다. 경찰청의 갑작스러운 해체 발표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수들이 정상만을 보며 달릴 수 있도록 독려해 아산의 사상 첫 K리그2 우승을 연출해냈다. 박동혁 감독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지도력으로 단숨에 바꿔버렸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박감독과 대망의 우승세리머니가 예정된 FC안양전을 앞두고 만났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멋진 시즌을 보낸 박 감독은 자신의 공을 선수 등 주변에 돌렸다. 그리고 안양전에서도 팬들에게 승리라는 멋진 선물을 안기겠다고 다짐했다.

Q. K리그2 우승을 축하한다. 감독 데뷔 시즌에 우승을 이뤘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경험이 아니다. 소감을 말해달라.

A. “사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팀 선수들의 자세나 팀 분위기를 접해 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쁜 감정까지 표현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떨떨하지만 선수들과 스태프, 서포터스 ‘아르마다’를 비롯한 팬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베테랑 감독도 쉽게 하지 못할 힘든 경험을 하고도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

A. “처음 감독을 하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어린 감독이 팀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 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팀 해체 이야기가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주어 우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감독으로서 기분 좋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Q. 힘들었을 만큼 지도자로서도 많은 걸 얻었을 시즌일 듯하다. 개인적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A.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신뢰 덕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시기도 팀워크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선수들 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Q. 선수들에게 군·경 팀은 복무하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진 팀이었다. 하지만 올해 아산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성적 여부를 떠나 이점이 가장 뿌듯했을 듯하다. 감독이 처음 됐을 때 어떤 리더십을 보이려 했나?

A.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전 그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선수들이 알아서 느끼게끔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때론 채찍도 가했는데, 선수들이 내 뜻을 잘 알아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Q. 아픈 얘기지만, 이토록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속할 법하다.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A. “우승을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찰청와 협약 등 여러 사정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감독으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수들이 나서서 마련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축구 선수로서는 이겨서 성과를 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이후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희망합니다.”

Q. 이번 FC 안양전이 마지막일수도, 다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일수도 있다.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멋지게 장식해야한다는 사명감이 클 것이다. 아산의 리더로서 팬들에게 남기고픈 말이 있다면?

A. “2018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기억 남는 경기가 바로 0-3으로 졌던 FC 안양 원정 경기입니다.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한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홈경기 상대가 공교롭게도 안양인데,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축구팬들과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즐겁게 경기한 후 기쁘게 우승 세리머니를 할 수 있게끔 나를 비롯한 스태프, 선수들, 프런트가 한 마음이 되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이다. 2018시즌을 훌륭하게 치른 선수들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A. “형처럼 다가서는 감독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팀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우리의 목표인 우승을 이룬 만큼 멋지게 한 해를 끝냈으면 한다. 그리고 시즌 중 떠난 선수들에게도 이 말을 건네고 싶다. 함께 만든 우승인 만큼 같이 즐겼으면 한다.”

OFFICIAL
온양농협 | 아산축산농협 | NH 아산원예농협 | 신창제지공업(주)
(구)아라 한방 육가공 | 한우사랑 | emc orp 아산시물환경센터 | Venture 1st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 Fitz 피츠 수퍼클리어 | 남자들아니까 UL·OS | FM7 아산점
soribada | 둔포농협 | 영인농협 | KFC
아산중무병원 | 아산가톨릭정형외과의원 | Paradise Spa D O G O | 밝은신안과 SHIN'S EYE CLINIC
아산우체국 | Wefoot Technology | Red Bull | 아산시체육회

KEB 하나은행 K LEAGUE 2 35R

2018. 11. 4(일). 17:0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VS FC 안양



HEAD COACH
박동혁 감독

“이미 우승을 확정했지만, 안양전은 중요하다. 지난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되갚아줘야 할 빚이 있다. 즐겁게 우승 세리머니를 하겠다.”

선수들이 느끼기엔, 이번 안양전은 2018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홀가분한 경기가 아닐까 싶다. 시즌 내내 열망했던 우승을 이미 손에 넣은 상황에서 치르게 된 경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은 우승컵을 쟁취했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강자 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더욱이 안양전이 끝난 후에는 찬란한 은빛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다. 안양전 승리라는 제물을 통해 축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KEY PLAYER
NO. 28 주세종

“그간 팀에 많이 보탬이 못 되어 미안했다. 안양전에서 무조건 승리해 즐거운 분위기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싶다.”

비단 시상식 여부를 떠나서도, 아산이 안양전에 총력전을 벌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아산은 지난 9월 1일 안양 원정에서 0-3으로 아픈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기에 팀이 받은 충격은 꽤 컸다. 하마터면 우승을 향한 발걸음이 더뎌질 수 있던 위기였다. 중원의 핵 주세종을 비롯한 아산 전사들은 그 아픔을 되돌려주기 위해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시원한 복수전을 통해 아산의 자존심을 곧추 세울 의지가 가득하다.

2018 K리그2 팀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아산	66	19	9	6	51	26
2	성남	59	16	11	7	47	36
3	부산	55	14	13	7	51	32
4	대전	49	14	7	13	42	42
5	광주	44	10	14	10	45	39
6	안양	43	12	7	15	41	46
7	수원FC	42	13	3	18	29	44
8	부천	39	11	6	17	37	46
9	안산	38	10	8	16	32	41
10	서울E	33	9	6	19	29	52

2018 K리그2 아산 팀 내 개인 기록



최다 득점
FW 고무열
6
GOALS



최다 도움
MF 조성준
6
ASSISTS



최다 출전
MF 고무열
29
PLAYED

VITAMIN HOUSE
윤가네 옛날 통닭 | 동구식자재마트 | 시우사슴농장 | 우당 아산용화점
신성콩나물해장국 | 기와집식당 | 풍기반점 | 육♥해 용화점
Hyundai Oilbank 대광셀프주유소 | 아산 리버뷰 | 드림디포 | 한국정보컨설팅
지산흑돈 | 삼천리자전거 용화점 | 강남라인 성형외과 / 피부과 의원 | 갤러리
신토불이 아산점 | 국향 아산점